

현대차, 美 넘어 인도·유럽 소아암 환아에도 희망 전달

‘현대 호프 온 휠스’ 27주년 기념행사
美 소아암 인식의 달 맞아 진행
생존율 향상·치료기술 발전에 기여

현대자동차가 소아암 환아에 대한 지원을 미국을 넘어 유럽과 인도로 확대한다.

현대자동차는 딜러와 함께 설립하고 후원하는 소아암 치료·연구 지원 비영리 단체 ‘현대 호프 온 휠스’가 2026년부터 유럽과 인도에서도 프로그램을 시행해 더 많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27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 관계자와 미국 주요 딜러를 비롯해 미국 의사협회 및 소아암 관련 단체 관계자, 소아암을 극복한 어린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현대 호프 온 휠스’ 27주년 기념행사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오른쪽은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 본부장, 왼쪽은 케빈 라일리 현대 호프 온 휠스 부의장과 어린이 홍보대사와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이달 미국 소아암 인식의 달을 맞아 진행됐다. 현대 호프 온 휠스는 지난 27년간 지원해온 연구 성과를 조명하며 소아암 생존율 향상과 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되새겼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어린이 암 환자의 약 85%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며 “이는 1975년 5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 수십 년간 치료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중요한 진전”이

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호프 온 휠스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돕는데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유럽과 인도도 활동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환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998년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 미국법인과 850개 이상의 미국딜러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2700만달러 규모의 연구·프로그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2억7700만달러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각국의 현대차 법인과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며 북미 전역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텔라 아르투아, 권성준 셰프와 캠페인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함께 ‘스타 스탠다드(The Star Standard)’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명 ‘스타 스탠다드’는 별처럼 빛나는 최고 기준과 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스텔라 아르투아



홈쇼핑, 급식조리사 양성 지원

홈쇼핑은 지난 3일 취약계층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식조리사 양성지원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총 5000만원을 지원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급식조리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홈쇼핑

LG, 글로벌 랜드마크서 ‘APEC’ 알린다

美 타임스퀘어, 英 피카딜리광장과
서울 곳곳서 APEC 홍보영상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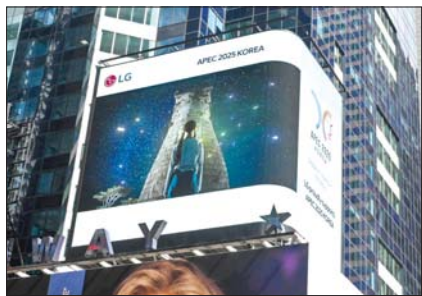
LG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이하 APEC)’를 글로벌 랜드마크에서 알리고 있다.

LG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광장 등 세계적 명소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제작한 APEC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영상은 첨성대, 얼굴무늬 수막새기와, 금관 등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APEC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비롯 블랙핑크, BTS 등 주요 K-팝 아이돌의 모습을 함께 담아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강조했다.

LG는 지난주부터 광화문, 시청, 명동,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APEC 기간 중 열리는 경제인 행사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SUMMIT 2025)’를 알리는 영상도 송출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 E C 정상회의 홍보영상(위) 속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 첨성대와 런던 피카딜리광장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국내의 홍보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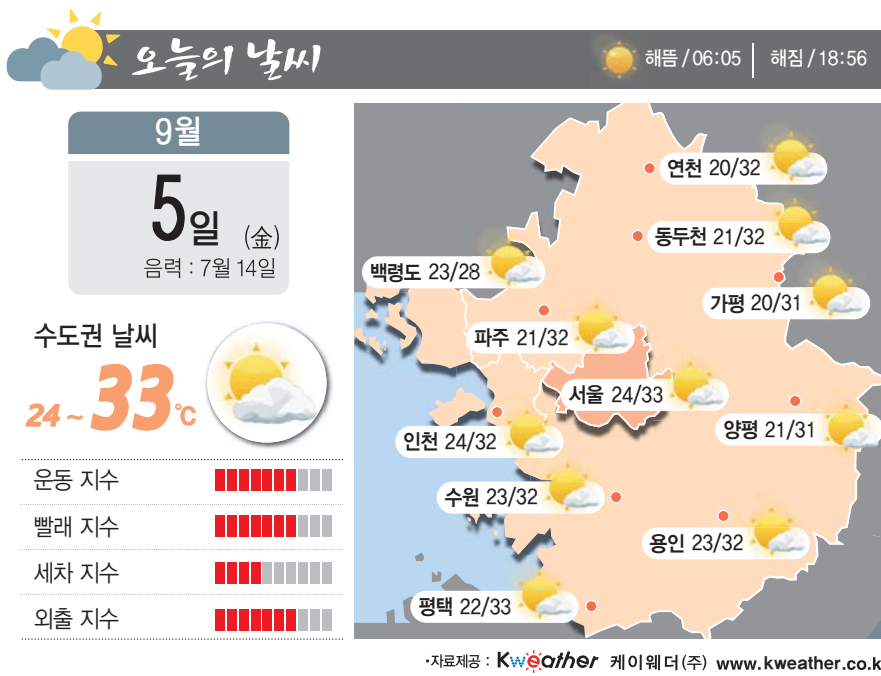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인사

- ◆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 ◆ **핀포인트뉴스** △금융부 부국장 정인홍

부음

- ▲ 임구연씨 별세, 임순환씨 상배, 임지선 임가현 임가희씨 모친상, 이한형(국민일보 사진부 기자)씨 빙모상=4일 대구 한해밀리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53-760-8800



스타벅스,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구성 강화

‘Hello, Student!’ 론칭 1주년
모든 제조음료 50% 할인 등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구성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고,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 카카오톡 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상태를 인증하면 제조 음료 할인, 음료 사이즈업 쿠폰 제공 등 월 최대 2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Hello, Student!’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수십만 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입했다. 가입자 중 80%가 만 25세 이하였으며,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혜택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던 대학생(대학원생) 회원 대비 월평균 구매 횟수와 구매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매월 제공되는 제조 음료 할인 및 사이즈업 쿠폰이 Z세대 고객들을 매장으로 이끈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가입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자 스타벅스는 개강을 맞은 이달부터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혜택 구성을 선보인다.

가입자에게 최초 1회 주어지던 특정 음료 50% 할인 쿠폰 혜택은 앞으로 모든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으로 제공되며, 매주 제공되는 혜택은 평일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1종에서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이 추가된 2종으로 제공된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쿠폰 이용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던 특정 음료 사이즈업 쿠폰은 푸드 20% 할인 쿠폰으로 변경 제공돼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의 푸드 선택권을 크게 넓혔다.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한 혜택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열릴 예정이다.

포스코, ‘中企 교육훈련’ 최우수 기업 선정

(7년 연속)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협력사·하도사·용역사 등 563개사 임직원 2만3458명을 대상으로 용접·천장크레인·기계정비·전기설비 관리 등 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역량 향상 교육 등을 펼쳐왔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컨소시엄 교육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는 약 500여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한 인원은 현재까지 약 71만명에 달한다.

포스코는 최우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500만원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센티브 누적 기부금은 1억 8500만원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결과,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했고 철강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사 및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청호나이스,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청호나이스의 ‘빌트인 냉온정수기 블리스’가 ‘2025 우수디자인(GD)’에서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다. 4월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빌트인 냉온정수기 블리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취수 기능을 적용했다.

/청호나이스



무신사스탠다드, 새로운 엠베서더 선정

모던 베이식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가 배우 이도현과 한소희를 새로운 브랜드 엠베서더로 선정하고 2025년 가을·겨울 시즌(25 FW) 캠페인 화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무신사